

LG-D, 중국기업과 LCD 협공작전

AOC와 공동 마케팅 협약 ... IPS 기술 앞세워 중국시장 공략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의 모니터 제조기업과 손잡고 현지 LCD(Liquid Crystal Display)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모니터 시장 1위인 AOC와 IPS 공동 마케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월13일 발표했다.

LCD는 액정 구동방식에 따라 TN, VA, IPS 등 3종류로 구분되는데 가장 먼저 상용화한 TN(Twisted Nematic)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시야각이 좁아 개선책으로 IPS(In-Plane Switching)와 VA(Vertical Alignment)가 개발됐다.

VA는 액정이 수직으로, IPS는 수평으로 배열돼 있고, LG디스플레이는 IPS 방식을 적용해 패널을 만들고 있다.

AOC는 IPS 기술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잉핍(硬屏) 로고를 신문 등 각종 매체의 광고와 관측물 제작에 사용하고, 유통매장 직원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 IT사업부장인 한상범 부사장은 “우수한 화질을 제공하는 IPS는 프리미엄 모니터에 가장 어울리는 기술”이라며 “중국시장에서 IPS 공동마케팅으로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LCD 모니터 시장점유율이 27%로 유럽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규모는 2009년 3200만대에서 2011년에는 5100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3>